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1호 [루게 제23448호] 주체100(2011)년 5월 11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지!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원호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혁명의 성지를 꾸리는 사업과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을 잘해온 원산은하피복공장 지배인 조희석과 종업원들은 지난 15년간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다.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종업원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각자의 영예군인들을 찾아가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성의껏 도와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당의 군사중시사상을 받들고 중구역종합식당 동성국수집 종업원들은 수심차에 걸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로력투쟁을 고무해주었다.

평양인용소학교와 평안남도정보통신국도 군민대단결을 철저히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이 단원들의 교직원들과 종업원들은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정상화하고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피고있다.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책임부원 한혜철은 자식들의 가슴속에 총대우에 사회주의조국도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깊이 심어주고 원군사업에 앞장섬으로써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기쁨을 빛내여가고있다.

덕천시광정사업소 로동자 석성숙과 그의 가정에서는 군사부시절처럼 살며 일해나가고도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스웨리에의 공산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스웨리에의 공산당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스웨리에의 공산당 위원장

안데르스 칼손이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던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발행,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원대성 에파도르 파란

다협회에서 4월 7일 전자도 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로씨야 하바루스크변방 출판사에서 4월 26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지질탐사성과 확대

국가자원개발성아래 각 도탐사관리국들의 일군들과 탐사대원들이 조국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고 지하자원을 적극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탄광, 광산들과 규모가 크고 개발조건이 유리한 중요대상에 탐사력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성에서는 각 도탐사관리국들에서 지질탐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성항모부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고무하고있다.

국가자원개발성아래 각 도탐사관리국들에서

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탐사력량을 집중하고 설비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각 도탐사관리국과 정부원들이 각 도탐사관리국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광강도지구와 최첨단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내러가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기술지도를 확고히 앞세워 좋은 성과들이 마련되게 하고있다.

광강도탐사관리국의 일군들과 지질탐사대원들이 남사지구 유용광물탐사에서 남사지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군들과 탐사대원들은

어비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지난해에 이룩한 지질탐사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조국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이 지구에서 또 하나의 유망한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함경남도탐사관리국 탄광산지질탐사단과 검덕산지질탐사대의 지질탐사대원들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하여 시추설비와 탐사대원들의 힘을 집중하여

동부와 서부의 광체를 해명해나감에 탐사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평안남도탐사관리국아래 북산지질탐사대, 안주지질탐사대, 천동동굴지질탐사대의 지질탐사대원들은 새로운 석탄대장광물지질탐사를 확충하는데 이 시추설비들을 빠른 시일안에서 이동전개하였다. 이곳 탐사대원들은 부단적인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탐사성과를 날같이 확대하고있다.

국가자원개발성아래 각 도탐사관리국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4월에도 전국의 앞장에서 파철모기사업에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양시의 책임일군들은 파철모기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원원탐구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을 잘하고있으며 수송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강철건설지원사업을 힘있게 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지난 4월에 시안의 모든 구역, 영, 인민반들에서 맡겨진 파철모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강철건설지원원들의 날로 높아가고있다.

중구역, 모란봉구역, 대성구역, 만경대구역, 동대원구역, 서성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근거있게 내밀어 여러에서 파철원천을 찾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로 보내주었다.

함경북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맡겨진 파철모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책시, 청암구역, 포항구역, 신암구역, 송명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승조한 공민적자격을 안고 파철모기사업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전달보다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들이었다. 이외에도 평성시, 청남구역, 평원군, 함흥시, 단천시, 신포시, 만포시, 회성시, 강계시, 천마군, 안변군, 평강군, 송화군, 삼천군, 신천군, 온천군, 개성시, 연안군, 대흥단군 등 많은 시, 군들에서 4월 파철모기에서 실적을 올렸다.

경공업성, 기상수문국, 중앙통계국, 국가건설감독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파철집중수송에 적극 참가하여 파철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파철수송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함흥철도국의 일군들은 파철수송에 필요한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차장이 작업이 제일 복잡한 승객들을 직접 나가 현지에서 수송지휘를 하면서 모아들이는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으로 실어보내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날로 높아지는 강철건설지원열의에 의하여 강철과 황철, 성강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는 철강재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역

## 영광의 땅에서 모내기 시작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들고 불리한 일기조건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불철영농준비를 앞섰던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모내기 작업을 벌

원화협동농장

은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협동농장을 들끓이였다.

어비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리둥절한 영광의 포전에서 모내는기계의 발동소리 높이 울리며 첫모를 내는 궁지와 자랑이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넘쳐나고있었다.

모내기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깊은 관심을 돌려온 농업성과 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등 모든 영농조직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고 유기적비료를 원화하여 일한 벼모를 키워온 원화협동농장원들이다. 이들은 자연호르몬물질을 리용하여 수백정보의 논에 단물이 흘러들게 하였으며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정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논갈이와 씨뿌리기를 앞세워 모내기를 적기에 할수 있게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어비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내기를 시작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알곡생산량을 높여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냈다. 자각을 안고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불리한 불철날씨조건에서도 벼평상모판만기와 씨뿌리기 등 모든 영농조직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책임적으로 하고 유기적비료를 원화하여 일한 벼모를 키워온 원화협동농장원들이다. 이들은 자연호르몬물질을 리용하여 수백정보의 논에 단물이 흘러들게 하였으며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정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논갈이와 씨뿌리기를 앞세워 모내기를 적기에 할수 있게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어비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내기를 시작한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알곡생산량을 높여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 사회주의경쟁으로 들끓는다

대흥단군 농장들에서

대흥단군에서 사회주의경쟁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에서 사회주의경쟁목표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현실성있게 세우고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농장들이 앞장서고있다. 신홍, 신덕, 삼봉, 삼덕농장들도 경쟁적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속에 정신력발동의 묘술이 있고 집단적혁신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모든 농장의 관리위원들과 작업반장, 분조장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자기 단위가 앞서나갈수 있도록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돌격전의 앞장에서 이선적화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스스로 경쟁목표를 높이 세우고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하기 위하여 분발하고있다.

농장들의 트랙터운전수들과 파철모기사업에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평성시, 청남구역, 평원군, 함흥시, 단천시, 신포시, 만포시, 회성시, 강계시, 천마군, 안변군, 평강군, 송화군, 삼천군, 신천군, 온천군, 개성시, 연안군, 대흥단군 등 많은 시, 군들에서 4월 파철모기에서 실적을 올렸다.

경공업성, 기상수문국, 중앙통계국, 국가건설감독성을 비롯한 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파철집중수송에 적극 참가하여 파철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파철수송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었다. 함흥철도국의 일군들은 파철수송에 필요한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차장이 작업이 제일 복잡한 승객들을 직접 나가 현지에서 수송지휘를 하면서 모아들이는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으로 실어보내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날로 높아지는 강철건설지원열의에 의하여 강철과 황철, 성강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는 철강재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역

# 김일성조선의 100년, 승리와 기적의 역사

##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계신 우리 어버이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여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는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뿌리를 두고있다.

오늘로 당보지면에 모신 이 사자는 어민위원을 친품으로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인민적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탈복장의 명석우에 앉으시여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시고 속담에 가깝게 앉아야 정이 더 든다고 했는데 어서들 가까이 앉으라고 다정히 이르시며 청산리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을 의논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이 불멸의 화폭을 우러를수록 자신께서는 농민들과 함께 있는것이 즐거운 명절로, 휴식으로 된다고 하시며 비오는 날에도, 눈오는 날에도 포전길을 걷고계신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승업화기 안겨온다.

정녕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언제나 승리한다는 혁명의 철리를 삼파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평범한 인민, 소박한 농민들을 찾아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포전길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고향을 같이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항일의 나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주조를 내놓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시였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소박한 말을 귀담아들으시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진재로운 모습을 우러르느라면 해방후 토지개혁법이 발표되던 날이 삼삼히 떠오른다.

농민들의 요구와 념원,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주체적인 토지개혁법을 작성하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이 나

라 농촌마을들을 찾다찾으며 농민들과 허물없이 나누신 이야기 그 열마이던가.

어느날 아침은 대동군의 발머리에서, 어느날 저녁은 서해바다가 외진 마을에서, 어느 일요일은 농촌의 초가집에서...

근로대중은 우리의 선생이며 백파사건이라고. 근로대중보다 더 총명하고 그들의 의견보다 더 정확확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던 나날을 우러는 영원히 잊을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가 승리한 어느해 가을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촌실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홍원군의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의 소박한 제의를 듣게 되시었는데 한 농촌농장원은 그이께 념원들이 머리에 입을 이고 다니는것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였다.

그 념원농장원의 말을 심중히 들으시던 그이께서는 이것은 기술혁명에 대한 신심으로 된다고 참으로 의미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오래동안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일해왔고 모든것이 다 부족했던 당시의 조건에서 농민들이 집을 이고 지는것은 누구나 응당한 일로 여기고있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강서군 청산리 농민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제 47 (1958)년 10월

현지지도와 마치고 돌아오신 길로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트랙토르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시고 로동자들을 찾아가시여서는 자체의 힘으로 트랙토르와 자동차를 생산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언제나 이렇게 일해오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과업이 나시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민들에게서 좋은것을 많이 배우고 힘도 용기도 얻는다고 늘 겸허하게 말씀하시며 언제나 그들속으로 들어가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은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에나 감동깊이 새겨져있다.

년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추동하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도 인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품모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합박이 평평 내리는 이른 새벽에 수수한 농가를 찾은것으로부터 시작하신 청산리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현지지도는 숭고한 사랑과 원신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다.

불편한 몸으로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일군들이 다른 며칠간이라도 쉬실것을 간절히 말씀드렸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지금 청산리사람들이 큰살림을 펴는 걸러하게 말씀하시며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백발을 씌는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시며 그들의 휴식도 없이 일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때로는 눈발머리에서, 때로는 농가에서 수많은 조합원들과 로인들, 유가족들, 리와 군의 일군들을

만나시여 군중의 목소리와 의견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귀중히 새기신 어버이수령님.

진정 우리 수령님처럼 이롭없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에 그릇 못순교한 헌신적의 자욕을 수놓으시면서 위대한 대중혁명방법을 창조한 위인을 떠나는 날이 못한다.

웃기만 하네기만하네, 웃사람이 아예사람을 도와주며 일군들이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법을 찾으려는 모든 일에 정치사업, 사람과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조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할것을 요구하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이것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혁명승리의

필승의 보검이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내시는 우리 수령님의 혁명적근중관념, 군중로선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상과 내용, 그 창조과정에 있어서, 그에 깃든 숭고한 덕성으로 하여 더없이 위대하다.

언제인가 우리 수령님께서 은 덕에 천하를 얻은셈이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천하를 얻고 천하를 움켜쥐는 믿음, 그것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판포되어있는 인민에 대한 가장 숭고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무릇 과학적리론은 두툼한 책들이 저술된다.

하지만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그 어느 서적에서 저술된것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께서 흠뻑땀을 흘려 농촌집에서, 눈앞의 포전길에서 우리 당의 진품으로 되어있는 혁명적근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키신 백파사건이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 고매한 인덕의 령사,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이였고 그 령사속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변혁이 이 땅에 장엄하게 펼쳐졌음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진리로 체득하였다.

세상에는 위인도 많고 이로운 정치가도 많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서 그들과 고향을 함께 나누시며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그런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현실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적극 따라배우고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찌기 우리 당의 사업방법을 수령님적사업방법이라고 정식화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존중하며 그것을 옹호관철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인민대중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그 힘을 믿지 못하면 신심을 잃고 의기소침해지지만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신심과 용기도 생기며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도 사상이 바로 청산리정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사업실현을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열쇠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비결도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들어가 찾으신다.

인민들속에 철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으며 모든것이 다 있다고, 모를것이 있으면 인민을 찾아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하시며 동트는 새벽에도, 해지는 저녁에도 언제나 인민을 찾아가시던 우리 수령님그대로 끊임없는 전진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늘 병사들,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시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로 이끌어가신다.

인민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고결한 사랑과 이인위적인 믿음을 안시고 인민과 더불어 승리할치시는 위대한 선군혁명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사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본사기자 황명희

### 농업발전의 길에 새기신 거룩한 자욱

**협동화의 귀중한 씨앗**

주제 41 (1952)년 5월 10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원화리를 찾으시신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한 농가의 마당가에 조종회 돌이서신 그이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새날이 밝겠는데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마당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며 쪼단우에 스스로엎어 앉으시여 무려 두 시간을 보내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종일 농민들과 일손을 같이하시며 농사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였다. 그러시면서 손수 씨앗도 뿌리고 거름도 나르시며 원화리사람들이 잘살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대 소

무리벌과 태상벌, 황주강변을 걸어다니시던 그 지구 농민들의 농사형편과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기우제》며 《100자우물》, 《백성보》와 같은 물에 대한 논문을 써주시고 농민들이 물 걱정을 안고있는 어지러운 지구 인민들의 과거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였다.

이후하여 그이께서는 농민들의 세기적편원을 풀어주는 일인데 어떻게 경제적으로만 산산했는가, 농민들의 물에 대한 숙망을 우리 시대에 다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지러운관공사를 1차공사대상으로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새 령사에서 또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수놓아지게 되였다.

**물에 대한 숙망을 헤아리시여**

조국해방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던 주제 42 (1953)년 9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종일 농민들에게 이제는 농경도 끝났으니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물문제부터 풀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진행할 중요한 관계공사대상이

어떤것인가 물이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평남관개공사에 주되는 힘을 넘으면서 그밖에 몇개의 대상을 1차적으로 하고 어지러운 비뚤한 다른 몇개의 대상은 2차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도우에 허리를 굽히고 봉산나

그러시고는 이 좋은 품종에 아직 이름이 없이 번오만 붙여 놓고있다는것을 아시고 연구사들에게서 신 품종을 찾아내라고 연구한 새 품종의 이름을 지어 주고 가자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던 연구사의 이름을 부르시며 새로운 품종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시겠다고 하시였다.

새로운 품종의 이름을 지어도 그것을 연구한 과학자의 남모르는 수고부터 헤아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웅심깊은 은정에 떠날줄도 새로운 품종이 사인것은 이름을 달고 상에 올려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준혁

### 최영림총리



최영림총리 해산청년광산 사업 료해

### 회고록의 갈피에서 만경대가문의 애국애족의 가풍

절세의 위인의 한평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만민의 심장마다에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더욱 빛을 뿌리는 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집대성되어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깊이 학습하고 거기에서 혁명하는 원칙과 방법을 배우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진리를 체득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하고 무한한 세계가 비껴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첫장을 펼치면 이런 뜻깊은 교훈이 새겨져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며 단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단단히 새겨두어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진리속에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이 비껴있다.

인민위원을 한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변함없는 신념과 신조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그것은 원수들의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웃으며 폭풍속에 아끼없이 한몸 내세인 만경대혁명가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가풍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에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었다. 그렇지만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몸을 내대었다라고 감회깊이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아버버이신 김용우선생님께서는 남의 료를 파주는 산당지기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이였다. 미계침략선 《서면》호가 양각도둑에게서 기어들이 치명적인 만행을 저질렀을 때에 김용우선생님께서 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달음으로 평양성에 들어가시여 화공전범으로 칙찰자들을 수장해버리는 데 한몫 단단히 하시였다.

《남자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

김보현선생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안식구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땀이 날도록 교양하시였으며 자손들을 혁명투쟁에 이끌림이 내세우시였다. 리보익수께서도 자제분들에게 대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려서부터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시였으며 그런 지향과 념원으로 우리 수령님의 존함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성주》라고 지어주시였다. 누리에 불는 불이 되시여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도 일제와 생의 마지막순까지 용감하게 맞서싸우신 김형직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신 열혈혁명가 김철주동지...

이런 위대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키워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여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간고한 20성상의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지 않았던가.

정녕 만경대혁명가문의 가풍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한 애국애족애민의 가풍이다.

오늘도 만경대혁명가문의 가풍은 인민위원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은 신념에서 장군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김명훈

### 크나큰 믿음속에 빛나는 교정

오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은 10년전 대학을 찾았을 때와 달리 인민들에게는 장군님의 한평생은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최첨단과학으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주체적립장에서 트리트기 서우리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세 세기의 첫해인 주제 90 (2001)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였다.

대학을 졸업한 일군들이 언제 보아도 책임성이 있고 무슨 일에서나 탐구성이며 계구실을 한다고 고집하는 평가의 말씀을 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는 순간 대학일군들의 심장은 금시라도 터질것 같 정도로 부풀어올랐다.

어버이장군님의 심중에 뜨겁게 자리잡고있는것만도 최상의 영광인데 그이께서는 크나큰 믿음을 거듭 베풀어 주시였다.

당시 대학에서 새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있던 도서관의 건축모형을 보여주던 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건축설계에서 나타난 결함을 대변에 알아보고 김책공업종합대학도서관을 전자도서관으로 건설할데

대한 응대한 설계도를 펼쳐 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떠나시기에 앞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이 믿음과 기대에 훌륭한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대학에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한평생은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정녕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은 최첨단과학의 기술들을 끊임없이 키워내는 위대한 원천이다.

애광속

# 전력증산과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대고조진군을 적극 추동하자

## 세 차게 라오르는 증산투쟁의 불길

### 북장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북장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운영부문의 전력생산자들이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발전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있으며 보수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보수 및 중보수전투에서 편익자랑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설비리용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며 설비들을 기술공학적요구에 맞게 잘 다루고 설비관리에서 엄격한 제도와 철서를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디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적기대의 기대공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앞장에 서도록 잘 이끌어주면서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전력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운영호기의 대수를 더 늘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계획된 발전설비들의 대보수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

세우고 자체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주체를 적극 발동하여 결연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청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직말씀을 높이 받들고 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면서 그 운영에서 사소한 이상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2직장의 로동자들은 가동중에 있는 발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관리운영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는데 선진적인 주의를 돌리고 있다. 하자직장을 비롯한 연료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엄격히 진행하여 전력생산의 불길기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 잘하기 위한 사업을 기술혁신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가고 있다.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면서 기능전습을 강화하여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한 더 높이고있다. 보수부문의 로동계급도 비상한 혁명적열의를 안고 발전기 대보수를 다그쳐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참모부의 지휘밑에 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그날보수계획은 무조건 그날로 수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발전설비대보수과제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수행하고있다. 특히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통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열어나갔으며 많은 보수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일정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다. 이미 여러기의 발전기대보수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낸 대보수사업소의 로동계급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5호기대보수전투를 달랠 예정이다. 열설비 보수직장과 설비조립직장, 보온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충성한 기세로 매일 과제를 1, 2배이상으로 넘쳐수행함으로써 많은 발전설비대보수과제를 앞당겨 끝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통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열어나갔으며 많은 보수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일정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다. 이미 여러기의 발전기대보수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낸 대보수사업소의 로동계급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5호기대보수전투를 달랠 예정이다. 열설비 보수직장과 설비조립직장, 보온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충성한 기세로 매일 과제를 1, 2배이상으로 넘쳐수행함으로써 많은 발전설비대보수과제를 앞당겨 끝내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기술발전과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발전설비들의 가동률을 보다 높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전기시험소와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이 기술혁신투쟁을 활발히 벌려 연소효율을 더욱 높이고 설비보수를 다그쳐나가기로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높은 전력생산성과로 오늘의 대고조진투쟁을 힘있게 떠밀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증산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순성 사진 본사기자 리명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끈기있게 하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도록 하여야 하겠습디다.》 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으로 모든 사업들을 전개해나가는 단위들에서는 일이 잘되게 마련이다. 최근 고원철도분국에서 합리적인 장치를 받아들여 매달 많은 전력을 절약하고있는 사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우선 이 장치의 기능부러 보기가 좋다. 이 장치는 순시전력자 기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여줌으로써 전력소비단위에서 예정된 하루 전력소비를 철저히 지킬수 있게 해준다. 또한 그 소비단위에 대한 전력공급을 미리 재해하는 시간마다 하도록 함으로써 교차생산조직을 잘할 수 있게 한다. 그 외는 단지 기능적인 측면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이 장치는 우리의 자재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만들수 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실용적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어느날 분국의 일군들은 전기절약예비를 조성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열면 론의가 계속되는 속에 교차생산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고원철도분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일군들은 시험현장에서 방도를 함께 모색하고 결연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며 고심여려 노력을 기울였다. 거듭되는 실패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근근이내내 버텨가며 지리한데도 드디어 이 장치개발에 성공하게 되었다. 분국의 일군들은 이에 맞게 아레단위에서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순시전력소비량을 합리적으로 다시 정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돌리었다. 뿐만아니라 일정한 기간의 교차생산조직정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교차생산조직표를 다시 세밀하게 작성하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시켜나갔다. 이런 면면한 준비에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단위들에 이 장치를 도입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분국의 순시전력소비량은 종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고 교차생산조직도 더 잘할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에만도 분국에서는 이 장치의 도입으로 수백만kWh의 전력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이 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분국의 범위를 벗어나 함흥철도국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고있다.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경제적 실리도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일군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고 당정책관행을 위해 약하게 노력할 때 어디서나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각각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대고조진투쟁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해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수력발전관리의 전력생산자들은 뜻깊은 4월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 2배의 전력을 생산한 기세로 이달에도 생산을 더욱 늘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발전기의 효율을 끊임없이 높여 적은 물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수력발전관리국에서는 이미 마련해놓은 발전능력을 최대한 동원이용하는 사업을 중심고리로 정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두고 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설비관리와 수력구조물관리에 힘을 넣어 전력생산량을 늘이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안전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각기 수력발전소의 일군들은 생산물적적인 앞장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송발전소, 하천발전소, 수력발전소, 강계천발전소, 태천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쏟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발전설비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뜻깊은 4월 전력생산계획을 만나게 넘쳐수행하였다. 이달에 들어와

당 부문의 령도를 강화하고 자체 기술력량을 발동하여 안전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에 받아들이는 사업에 활기있게 벌리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전력증산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서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좋은 기술혁신안들을 제때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두고있다. 강계천발전소, 장진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들에서 월초부터 전력증산의 통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이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높은 수위, 높은 효율운전을 보장하여 같은 물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각기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생산에 리용하고 장마철 생산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통원하고 혁명적근성으로 수력구조물보수를 붙이 내내 다그치고있다. 수력구조물보수에서는 수송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 대동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앞장서고있다. 글 본사기자 정순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대, 정보산업의 시대입니다.》 전력전자기술은 전력반도체소자를 리용하여 전기에너지에 대한 변환과 조정을 실현하는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높은 전압과 선 전류, 대출력을 조종하며 대상하는 수파수위도 수십Hz로부터 수백kHz, 지어 수MHz까지에 이르고있다. 이 기술은 우선 한 형태의 전기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전기에너지변환기술이다. 현시대의 고압교류송전선 고압교류송전선에 비하여 더 높은 안전성과 많은 경제적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실증되었으며 여기에 전력전자기술이 도입되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변환과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역변환 등을 실현하고있다. 이와 함께 직류를 다른 전압의 직류로 바꾸는 변환, 교류를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꾸는 변환도

수요의 교류로 바꾸는 변환도 실현하게 되고있다. 다음으로 전력전자기술은 전기에너지의 기본정수인 전압, 전류, 주파수, 력률에 대한 조종기술이다. 이 기술을 리용하여 제작한 동적주파전력보상장치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가 중요하게 될 때 리용되지 못하는 무효전력을 보상하여 발전기리용률을 높여 줄으로써 전력생산량을 훨씬 늘일수 있게 해준다. 전력전자기술은 또한 높은 전압을 요구하는 발전설비들에 전력전자장치를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성능이 높은 전기설비들을 개발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력전자요소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으며 그 가지수는 더욱 다종다양하게 되고있다. 특히 이 기술은 긴장한 에너지원천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리상적인 에너지절약기술인 것으로서는 물론 공업의 여러 분야는 물론 사회생활과 가

정용전기제품들이 이르기까지 광범히 도입되고있다. 풍력, 태양열, 조수력, 지열 등의 에너지를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초래되고있는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수단으로 재생 가능한 특색에너지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데서 전력전자장치들이 결정적수단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 기술을 리용하여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여러 군데에서 송배전망에 부하자동관리장치를 도입하여 총선전력사용량도 보장하면서 부하의 선후차를 갖는 전력모드로서 전력의 질을 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업 일반에 널리 쓰이는 각종 규격의 송풍기, 압축기, 컨야기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의 속도조종과 에너지절약에 리용할수 있는 전압, 주파수조정 설비들이 연구생산되고있다. 철도운수부와 리계운수부

문제에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전기기관차나 캐드전차, 무궤도전차에 직류전동기대신 전력전자기술을 리용한 교류전동기전동기를 받아들인 전기기관차도 전기제동시 전력회생이 가능해져서 고장이 적어 운영에 편리할뿐만아니라 전력소비를 훨씬 줄일수 있다. 이모기종전력전자장치관련한 사업에 감투가편찬자 시험생산된것으로 교류전동기를 리용한 무궤도전차들도 생산되어 운영되고있다. 전력소비가 비교적 많은 제강, 제강소들과 제련소, 화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나라의 중요단위들에서도 이 기술을 받아들여도 좋은 만큼 발전소의 생산량과 맞먹는 전력을 얻어낼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에너지절약기술의 하나인 전력전자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투쟁을 힘있게 벌리려면 나라의 긴장한 전력수요를 결코 강제대구건설을 다그치지 않고 크게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충성

##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금지안고

린산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임업원들은 장군님의 숭고한 국토건설투쟁을 심장같이 새기고 군인의 모든 신념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리기 위한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 있다. 경영소의 일군들은 임업원들이 나라의 재부를 늘여간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그리고 경영소의 인력을 선진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전투적으로 벌려 짧은 기간에 새 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울라리도 새로 쌓았으며 문화후생시설들도 그르하게 갖추어놓았다. 경영소가 꾸려지는데 맞게 일군들과 임업원들은 군인의 여러 가지에 있는 작업반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갔다. 한두해사이 경영소의 면모는 물라보듯 달라지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산림조성을 위하여 일군들은 선진적으로 양묘장을 꾸리고

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국토건설투쟁을 심장같이 새기고 군인의 모든 신념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리기 위한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 있다. 경영소의 일군들은 임업원들이 나라의 재부를 늘여간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도록 교양사업을 적극 벌리고있다. 그리고 경영소의 인력을 선진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도 전투적으로 벌려 짧은 기간에 새 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울라리도 새로 쌓았으며 문화후생시설들도 그르하게 갖추어놓았다. 경영소가 꾸려지는데 맞게 일군들과 임업원들은 군인의 여러 가지에 있는 작업반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갔다. 한두해사이 경영소의 면모는 물라보듯 달라지고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산림조성을 위하여 일군들은 선진적으로 양묘장을 꾸리고

종자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쏟았다. 최동구, 홍성찬동무들로부터는 여려동안 품을 들여 재종원을 조성해놓았다. 군의 자랑인 새잎소나무, 이갈나무들의 재종양을 위하여 이들은 무려 수백종류의 재종원을 조성하고 여기서 군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을 너키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모체양묘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양묘장에서서는 종업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해마다 수십만그루의 나무묘를 키워내고있다. 석련지가와 대촌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협동농장들과 주민들이 벌여 이들이 조성한 산림의 덕을 특별히 보고했다. 오늘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잘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기록해나간다. 최고성적자를 기록한 임업원 김충성(가운데)은 이 글의 주인공이다. 그는 95일의 품에 대한 이야기

세게적으로 몇개 나라에서만 성공한 피혁정제기술을 연구하던 때였다. 부전상태에 놓인 연구사업은 좀처럼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유전자가 어느 한 나라에서 자라는 커피콩에 대한 믿음이었다. 리론적으로는 그렇게 공인되고있었다. 정말 방도가 없겠는가? 연구사들과 함께 김철원동무의 탐구도 깊어갔다. 그러면 어느 날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나. 커피콩도 어쨌든 콩이 아닌가. 그의 착상은 연구사들을 흥분시켰다. 여러명의 연구사들이 농업과학적 발작물연구수로 달려갔다. 그들이 종이에 그리고 온것은 95일의 품종자들이다. 분석이 진행되다. 드디어 어느 한 콩에서 커피콩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 기성의 지식과 경험에만 매달려가지고서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할수 없습니다.》 농촌당사업은 농학박사, 경제사물사업은 야금공학박사, 화학공장사업은 화학박사, 화력공장사업은 화학박사 할 때 가장 리상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최첨단과학을 위한 당사업자가 높은 실력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그 실력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초급당비서 김철원동무의 사업에 놓고 분석해본다. **키잡이와 지름길** 95일의 품에 대한 이야기

## 최첨단돌파와 당일근의 실력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초급당비서 김철원동무의 사업에서 임명되어온 직후에 있는 일이다. 과학위원회에 참가하였던 그는 한 연구사를 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세초조성으로부터 식물체의 분화를 위한 그의 착상이 매우 흥미있었던것이다. 안정수라는 연구사였다. 그는 연구실에 자주 내려갔다. 연구사들에 대한 그의 견해와 계획도 들어보고 생활적인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 과정에 그를 깊이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나서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그가 내용강변이속성연구집단을 이끌어내갈수 있는 기일이며 아니면 본인의 현재 견해를 책임질수 있는 인제라는것을... 반대에 부딪혔다. 전적으로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연구사라는 초기의 과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기때문이다. 사당갈연구를 하되 경지면적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내력성품종을 육성해나간다 한다. 전망은 확고하다. ... 과학기술적내공까지 한히 꿰뚫고있는 그의 이야기는 연구사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이렇게 완성된 착상안이 지난 1월 본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결론은 무엇인가. 키는 어느 사람이 잡으라는 말도 있듯이 당일근인 경우에도 찾아야 키잡이를 잘할수 있다는 것이다. 최첨단과학의 지름길은 바로 젊은 키잡이에 있다. **인재를 찾는 눈** 인간의 운명문제를 다루는 당일근은 심층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의 실례로 그의 미를 다시 새겨보도록 하자. 김철원동무가 초급당비서로

이행하는 현실은 당일근을 대 걸군부문의 실력자들로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믿음은 그를 더욱 분발시켰다. 꿈은 날마다 늘어났다. 미생물학,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당시방법도 없애 배우고 가있던 문헌은 한따라서는 핵심성원들모두가 그렇게 자기들의 활무대를 찾은 인재였다. 여기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인재보다 인재를 천기만공을 더 크게 일떠세우는 것이 훨씬 목적이 있다. 인재들의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것이다. **최첨단돌파의 첫걸음** 최첨단과학의 지름길로 더 빨리 내달리자면 첫걸음을 잘 떼야 한다. 그 첫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20년전 리파대학 졸업생들이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다. 그아래에는 예제날의 포병이었던 제대군인도 있었다. 김철원동무였다. 그의 포부는 남달랐다. 40대에 박사사가 되는것이였다. 군인정신으로 그는 미지의

이것이 어떤 심층성때문에 하루라도 못하게 된다면 조국의 발전에 얼마나 큰 직장을 주게 되었는가. ... 그의 이야기는 집행위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고도 누구나 범상치 않은 발전에서 인재를 찾아낸 는이야말로 높은 실력이 아니겠는가. 그후 안정수동무는 연구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선로동당의 영예도 지니고 한계 연구집단을 책임진 일군으로 자라났다. 그만이 아니다. 리재혁, 김성준, 차인조, 제인철, 홍희경동무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생물공학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고있는 문헌의 한따라서는 핵심성원들모두가 그렇게 자기들의 활무대를 찾은 인재였다. 여기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인재보다 인재를 천기만공을 더 크게 일떠세우는 것이 훨씬 목적이 있다. 인재들의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것이다. **최첨단돌파의 첫걸음** 최첨단과학의 지름길로 더 빨리 내달리자면 첫걸음을 잘 떼야 한다. 그 첫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20년전 리파대학 졸업생들이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다. 그아래에는 예제날의 포병이었던 제대군인도 있었다. 김철원동무였다. 그의 포부는 남달랐다. 40대에 박사사가 되는것이였다. 군인정신으로 그는 미지의

과학세계를 무섭게 파괴했다. 6개월만에 전공연구에 필요한 외국어를 배운 2년동안 전공부문의 최신자료와 참고서들을 독파했다. 몇년후에는 가치있는 연구성결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음목표를 향하여 또다시 돌진했다. 전망이 기대되었다. 이러한 그에게 당일근의 직책이 맡겨졌다.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하는 현실은 당일근을 대 걸군부문의 실력자들로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믿음은 그를 더욱 분발시켰다. 꿈은 날마다 늘어났다. 미생물학,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당시방법도 없애 배우고 가있던 문헌은 한따라서는 핵심성원들모두가 그렇게 자기들의 활무대를 찾은 인재였다. 여기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인재보다 인재를 천기만공을 더 크게 일떠세우는 것이 훨씬 목적이 있다. 인재들의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것이다. **최첨단돌파의 첫걸음** 최첨단과학의 지름길로 더 빨리 내달리자면 첫걸음을 잘 떼야 한다. 그 첫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20년전 리파대학 졸업생들이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다. 그아래에는 예제날의 포병이었던 제대군인도 있었다. 김철원동무였다. 그의 포부는 남달랐다. 40대에 박사사가 되는것이였다. 군인정신으로 그는 미지의

이행하는 현실은 당일근을 대 걸군부문의 실력자들로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믿음은 그를 더욱 분발시켰다. 꿈은 날마다 늘어났다. 미생물학,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당시방법도 없애 배우고 가있던 문헌은 한따라서는 핵심성원들모두가 그렇게 자기들의 활무대를 찾은 인재였다. 여기로부터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인재보다 인재를 천기만공을 더 크게 일떠세우는 것이 훨씬 목적이 있다. 인재들의 실력에 따라 결정된다것이다. **최첨단돌파의 첫걸음** 최첨단과학의 지름길로 더 빨리 내달리자면 첫걸음을 잘 떼야 한다. 그 첫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20년전 리파대학 졸업생들이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 배치되었다. 그아래에는 예제날의 포병이었던 제대군인도 있었다. 김철원동무였다. 그의 포부는 남달랐다. 40대에 박사사가 되는것이였다. 군인정신으로 그는 미지의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기록해나간다. 최고성적자를 기록한 임업원 김충성(가운데)은 이 글의 주인공이다. 그는 95일의 품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이 매우 빨리 발전하고있는 오늘 기성의 지식과 경험에만 매달려가지고서는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없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참담하게 복무할수 없습니다.》



#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적자주와 독립의 진로를 밝혀주신 불멸의 업적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는 장장 60여년을 헤아리고있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도 많았지만 조국통일운동은 역사의 도전을 파감히 뚫고 언제나 승리의 한걸음 따라 끝까지 전진해왔다. 그것은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인 김일성동지를 따라 민족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영도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김일성민족의 성스러운 100년사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업적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한 밑천으로, 고귀한 재보도 빛을 뿌리고있다. 그가 운세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첫 시기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외세를 반대하고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파감히 불러일으키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 쌓아올린 업적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한 밑천으로, 고귀한 재보도 빛을 뿌리고있다. 그가 운세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첫 시기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진로를 밝혀주시고 외세를 반대하고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파감히 불러일으키셨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조국통일업무를 개척하시고 승리로 이끄시어(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셨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다.)》

주제 34 (1945)년 8월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20성상에 걸치는 항일전선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우리는 외세에 거대한 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민족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놓은 역사사건이었다.

나라가 해방되었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 일제식민지상태를 뒤엎지 못한 것이 없었어 어려운 역사적이며 운명적인 과제가 내리고있었다. 해방된 이 나라, 이 민족은 어느 길로 가야 하

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는 당시 조선민족애에 나선 운명적인 과제였다.

이 역사적과제를 두고 각양각색의 주장들이 범람하였다. 도처에서 각이한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애국자》, 《혁명가》로 자처하면서 우리 나라에 당장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부르조아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외치는자들도 있었고 지어 봉건사회의 복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다가 해방의 감격이 사라지고 도전에 남조선에는 미군이 기어들어 《군정》을 실시하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비롯두둔하고있었다. 각이한 견해와 주장이 엇갈리고 외세의 간섭까지 포괄되는 속에서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인 주제 34 (1945)년 9월 당시 남조선의 지배적인인사들이 평양으로 달려와 아버지수령님께 앞으로 조선이 나아가 갈 길을 밝혀주시었으면 하는 청을 올렸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닌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3천만겨레모두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절절히 바라고있었던 것이다.

겨레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즉시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의 복잡한 정치정세를 분석하여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미군을 조선인민의 해방자처럼 생각 하고있는데 미군은 결코 해방자가 아니고,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마지못해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해질것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외세에 거대한 길을 걸어야 한다 조건의 실정에 맞는 진보적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명철하게 가르쳐주시었다.

남조선에 강점한 미군을 해방자로 보는가, 이것은 우리 민족의 진로를 밝히고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원칙적문제였다. 당시 우

리 민족내부에는 미국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해방직후 우익이나 중간세력은 물론 좌익을 표방하는 일부 사람들도 미국을 《우방》으로, 미군을 《해방자》로 여기고있었다. 지어 미국의 힘을 빌어 미국식부르조아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주장을 들고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

남조선에 강점한 미군은 인민들의 창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군정》을 남조선에서의 《유일한 정부》로 선포하였으며 인민들에게 《군정》법령에 무조건 복종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내부에서는 물론 국제정치무대에서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반파쇼연합국의 성원국으로 참전했다는 측면에만 관심을 두면서 그의 침략적본성을 가려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은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이며 그의 남조선강점이 우리 민족의 자주적발전에 파괴적작용을 끼칠것이라는 것, 외세에 기대를 걸어야 아니라 조선의 실정에 맞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오로지 투철한 민족주의의 안목과 비범한 통찰력, 해방한 정치적적성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이었다. 천변만화가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민족사의 장구한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민족의 자주적운동명예의 진로까지 밝혀주시는 바로 여기에 사상리론의 거장이시며 회의의 위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적품모가 그대로 비껴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버지수령님의 명석하고도 예리한 이결론은 우리 민족이 60여년간 걸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미자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한 근본방향이 되었다.

그때에 이르러 장래의 일까지 알수 없었지만 남조선의 인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을 금치 못하면서 민족의 진로에 대하여 혹독

히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그 후 새 조선건설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사선을 헤쳐온 당시 《서울신문》 기자들을 만나주시어 《부르조아공화국조선》은 우리 인민에게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으시는 길이며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것을 해나가는 길이라는 확고한 주장을 가져야만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수 있다는 데 대하여 철의 논리로 가르쳐주시었으며 민족운동자들과 하신 담화를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미국의 침략적정책과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파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비범한 선견지명을 두고 당시 우리 나라에 와있은 한 외국인은 자기의 회상실기에 이렇게 가려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구위에서 아직 열전의 기운이 짙어지지 않은 때에 평전의 기류가 흘러드는 혼잡한 정황속에서 누구도 파악할수 없는 사태발전의 정세까지 통찰하고 기동도 도대체 될 세계의 새로운 대결국면을 예측하시는데 그 과학적예견성에 머리가 아찔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는 데 초점을 지니신 인민을 반미자주의를 위한 애국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셨다.

전조선에 식민지화하려는 미국의 책동은 남을 따라 우심했다. 미국은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하는 국제회의의 결정을 관측하게 위망하고 친미주류들과 기반선전에 넘어간 일부 인사들을 저들의 반동정책수행에 내몰았으며 파쇼적인 《정당등록법》을 내리고 《정관사위조직법》 등 모략사건의 조작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약탈하게 탄압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남조선에서는 친미반동세력이 득세하고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

게 되었다. 이후 남조선강원도의 민심은 당국이 금강산관광개발에 대한 《한나라당》의 참례도 막아내려왔을 때에 이르렀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의 생활은 금강산관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을 생활의 토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벌써 3년동안 중단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각종 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의 생활은 금강산관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을 생활의 토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벌써 3년동안 중단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각종 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의 생활은 금강산관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을 생활의 토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벌써 3년동안 중단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각종 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75년 브라질, 스위스단체를 인터넷에 글 게재

조국광복회창립 75돐에 즈음하여 3일 브라질과 스위스단체들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념글을 올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75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족대단결사상은 지난 역사의 거두어들이는 자랑은 신념이고 의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나라의 독립은 민족자주의 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주체적정신을 지니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때 대한 사상을 제시하셨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셨다.

이것은 대결의 종식과 서해평

화협력특별지대의 조속한 설치를 바라는 민중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조선민중의 군사적정권을 고조시킬뿐 아니라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조선사회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하여 이것은 긴장수위로 변했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개선에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남북관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주석께서는 역사적인 남도취의에서 사실적인 통일전선책을 내시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다.

그의 전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1936년 5월 5일 조선인민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립되게 되었다.

조국광복회의 창립과 활동은 조선민족대단결의 고귀한 전통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흠뻑지는 이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운동도 힘있게 전진시켜온데 대하여 열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오늘 김정일영도자에

##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강렬한 지향

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지역 도지사 《선거》는 뜻밖에도 《한나라당》의 참례도 막아내려왔을 때에 이르렀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의 생활은 금강산관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을 생활의 토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벌써 3년동안 중단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각종 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의 생활은 금강산관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을 생활의 토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벌써 3년동안 중단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각종 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의 생활은 금강산관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을 생활의 토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벌써 3년동안 중단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각종 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남조선강원도주민들의 생활은 금강산관광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금강산관광을 생활의 토대로 삼아왔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벌써 3년동안 중단되어왔다.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말도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각종 기업체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 호전광들의 전쟁연습소동을 단죄

남조선의 《인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인 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뢰전광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이날 군부당국이 각종 포들과 전투기, 초계함 등 선제공격무기들을 동원하여 조선서해 백령도와 영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감행하려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대결의 종식과 서해평

화협력특별지대의 조속한 설치를 바라는 민중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로서 조선민중의 군사적정권을 고조시킬뿐 아니라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조선사회에서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하여 이것은 긴장수위로 변했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개선에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당국이 남북관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민주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집단

다시 등장시키고 정치사찰을 재개하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독재의 마수를 뻗기 위한 《정보원법》, 인민의 정당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수인론들과 대대별에게 방송통제권을 주어 언론을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들기를 위한 《언론관련법》을 비롯하여 《정보원법》, 《각종 소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악법들을 새로 조작하거나 보다 파쇼적으로 개악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신전화》가 아니라 파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보수파당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법질서확립》의 미명하에 새로운 폭압적법률들을 편이 하였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라는 그 무슨 《불법진압동원법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제외법안》의 조작과 《결심판제도》 적용, 전기충격기사용허가 등 그들에게 무제한한 파쇼적인 한가지 부여해주었다.

편이 취해지는 보수파당의 파쇼폭압조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각종 인민들은 《헌 (정권)》 하에서 파가 독재 (정권)의 망명을 보는데 갖는 행위가 또다시 재현되고있다.》고 개관하면서 보수당을 가리켜 신사시정권, 부고정권이라고 저주탄하였다. 이런 파쇼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의 반역적지는 인민의 자주적투쟁을 폭력으로 가지없이 박살시키는 파쇼독재정체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적지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는 법이다. 보수파당이

다시 등장시키고 정치사찰을 재개하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독재의 마수를 뻗기 위한 《정보원법》, 인민의 정당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수인론들과 대대별에게 방송통제권을 주어 언론을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들기를 위한 《언론관련법》을 비롯하여 《정보원법》, 《각종 소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악법들을 새로 조작하거나 보다 파쇼적으로 개악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신전화》가 아니라 파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보수파당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법질서확립》의 미명하에 새로운 폭압적법률들을 편이 하였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라는 그 무슨 《불법진압동원법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제외법안》의 조작과 《결심판제도》 적용, 전기충격기사용허가 등 그들에게 무제한한 파쇼적인 한가지 부여해주었다.

편이 취해지는 보수파당의 파쇼폭압조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각종 인민들은 《헌 (정권)》 하에서 파가 독재 (정권)의 망명을 보는데 갖는 행위가 또다시 재현되고있다.》고 개관하면서 보수당을 가리켜 신사시정권, 부고정권이라고 저주탄하였다. 이런 파쇼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의 반역적지는 인민의 자주적투쟁을 폭력으로 가지없이 박살시키는 파쇼독재정체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적지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는 법이다. 보수파당이

다시 등장시키고 정치사찰을 재개하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독재의 마수를 뻗기 위한 《정보원법》, 인민의 정당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수인론들과 대대별에게 방송통제권을 주어 언론을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들기를 위한 《언론관련법》을 비롯하여 《정보원법》, 《각종 소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악법들을 새로 조작하거나 보다 파쇼적으로 개악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신전화》가 아니라 파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보수파당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법질서확립》의 미명하에 새로운 폭압적법률들을 편이 하였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라는 그 무슨 《불법진압동원법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제외법안》의 조작과 《결심판제도》 적용, 전기충격기사용허가 등 그들에게 무제한한 파쇼적인 한가지 부여해주었다.

편이 취해지는 보수파당의 파쇼폭압조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각종 인민들은 《헌 (정권)》 하에서 파가 독재 (정권)의 망명을 보는데 갖는 행위가 또다시 재현되고있다.》고 개관하면서 보수당을 가리켜 신사시정권, 부고정권이라고 저주탄하였다. 이런 파쇼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의 반역적지는 인민의 자주적투쟁을 폭력으로 가지없이 박살시키는 파쇼독재정체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적지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는 법이다. 보수파당이

다시 등장시키고 정치사찰을 재개하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독재의 마수를 뻗기 위한 《정보원법》, 인민의 정당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수인론들과 대대별에게 방송통제권을 주어 언론을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들기를 위한 《언론관련법》을 비롯하여 《정보원법》, 《각종 소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악법들을 새로 조작하거나 보다 파쇼적으로 개악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신전화》가 아니라 파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보수파당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법질서확립》의 미명하에 새로운 폭압적법률들을 편이 하였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라는 그 무슨 《불법진압동원법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제외법안》의 조작과 《결심판제도》 적용, 전기충격기사용허가 등 그들에게 무제한한 파쇼적인 한가지 부여해주었다.

편이 취해지는 보수파당의 파쇼폭압조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각종 인민들은 《헌 (정권)》 하에서 파가 독재 (정권)의 망명을 보는데 갖는 행위가 또다시 재현되고있다.》고 개관하면서 보수당을 가리켜 신사시정권, 부고정권이라고 저주탄하였다. 이런 파쇼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의 반역적지는 인민의 자주적투쟁을 폭력으로 가지없이 박살시키는 파쇼독재정체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적지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는 법이다. 보수파당이

다시 등장시키고 정치사찰을 재개하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독재의 마수를 뻗기 위한 《정보원법》, 인민의 정당투쟁을 《불법폭력시위》로 몰아 탄압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보수인론들과 대대별에게 방송통제권을 주어 언론을 독재권력의 시녀로 만들기를 위한 《언론관련법》을 비롯하여 《정보원법》, 《각종 소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악법들을 새로 조작하거나 보다 파쇼적으로 개악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신전화》가 아니라 파쇼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보수파당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법질서확립》의 미명하에 새로운 폭압적법률들을 편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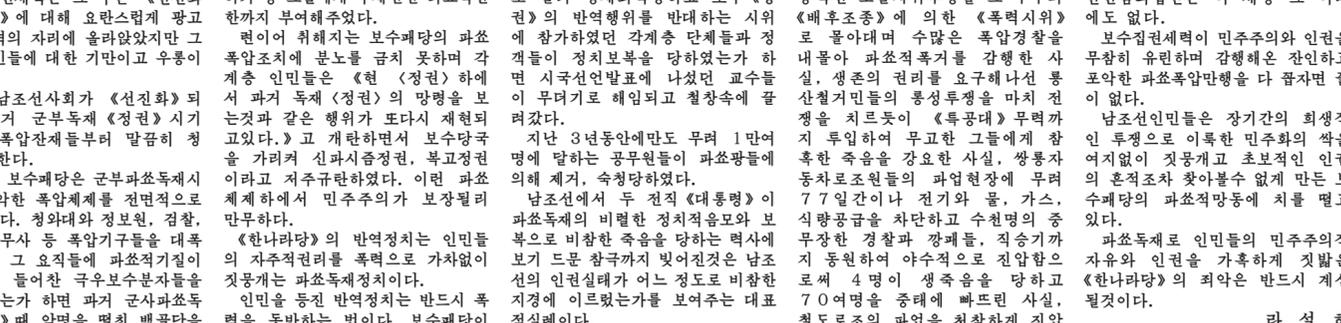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것이라는 그 무슨 《불법진압동원법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제외법안》의 조작과 《결심판제도》 적용, 전기충격기사용허가 등 그들에게 무제한한 파쇼적인 한가지 부여해주었다.

편이 취해지는 보수파당의 파쇼폭압조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각종 인민들은 《헌 (정권)》 하에서 파가 독재 (정권)의 망명을 보는데 갖는 행위가 또다시 재현되고있다.》고 개관하면서 보수당을 가리켜 신사시정권, 부고정권이라고 저주탄하였다. 이런 파쇼체제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의 반역적지는 인민의 자주적투쟁을 폭력으로 가지없이 박살시키는 파쇼독재정체이다. 인민을 등진 반역적지는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는 법이다. 보수파당이



당국의 반인민적처사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당국의 반인민적처사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

## 대양절 기념 행사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진행

대양절에 즈음하여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타이, 도미니칸,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벨기에,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적도기네, 메히코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4월 6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연회, 친선모임, 도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으며 그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놓여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에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연회감상회들에서는 《개선문》, 《주체사상탑》, 《오늘의 평양》, 《강성대국의 불보라》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책임자들, 해당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그리고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우리 나라 대사관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웹담무성 부상은 김일성주석은 조선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위업에 헌신성을 바치신분이라고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주석의 평도말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대단히 크고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웹담민민은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평도말에 강성대국

적도기네인민은 조선인민과 함께 김일성주석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고있다.

주석께서는 아르헨티나인민들의 새 사회건설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셨다.

그이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독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면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선인민과 모습은 적도기네인민들에게 큰 고무력을 안겨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였으며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진을 들었다.

## 김일성화전 전시회 기네에서 진행

대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화전 전시회가 기네 프나크에서 4월 13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시회장은 활짝 핀 태양의 꽃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기네 김일성화김일성화협회 위원장, 공보성 총장, 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호르야인문사 총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중언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초대되었다.

기네 김일성화김일성화협회 위원장 리아드 살루브는 개막식에서 연설에서 뜻깊은 대양절에 즈음하여 기네에서 김일성화전 전시회를 진행하는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기네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렬한 호모의 정에 떠받들려 기네땅에도 김일성화가 활짝 피어났다.

김일성화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위인에 대한 인류의 다합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할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해방로 인류가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신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탁월한 평도자를 칭송하는 김일성화를 언제나 마음에 안고 살것이다.

기네정부기관지 호르야인문사 총사장 우아에 말하였는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김일성화가 기네땅에 활짝 피어났것을 보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기네인민들속에 태양의 꽃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 평도강탈야심이 비낀 역겨운 추태

## 연마진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독도와 조선동해의 명칭을 제대로 표기한 글과 지도를 실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한 공정한 보도활동으로서 문제될것이 없다.

그런데 일본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가자 큰 변이라도 난듯이 《용담할수 없다.》 느니 뭐니 하면서 불맛을 하늘소처럼 날아대는가 하면 이 신문사를 산하에 두고있는 다우 존즈사에 항의를 들이내다 어쩔다 하며 소동을 피우고있다. 독도와 조선동해의 명칭을 역사적사실과 국제법칙에 부합되게 표기한것이 《잘못》이라는것이다.

그야말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생색지이다. 예로부터 독도는 우리 나라 땅이며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는 바다도 조선동해로 불리워왔다. 우리 나라 역사자료들에는 물론이고 중세이후 유럽과 미국학자들이 만든 지도들의 대부분에도 독도는 조선땅으로,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는 바다는 동해 또는 조선동해로 표기되어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무주지선점(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하는것)의 원칙과 바다의 이름을 표기하는 국제관례에 비추어볼 때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독도와 조선 동해의 표기를 저지른것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 잔뜩 부어 그 어디에 항의한다 어쩔다 하며 북장하게 날아대는것은 일본특유의 파렴치하고 고질적인 악습의 발로이다. 이것은 군국주의야말로 들뜬목의 평도강탈야심이 도를 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평도강탈야에 환장하여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마구 달려들었다.

일본정부는 이런 항의놀음은 어떻게 해서 나 국제사회에 독도를 자기 땅으로 공인시키고

조선동해를 《일본해》로 만들려는 속셈에서 출발한 군국주의적망동이며 역겨운 추태이다. 하지만 그런 양말질을 하고 해서 저들의 추악한 평도강탈수법이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다.

독도평원권과 조선동해표기에서 제기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날 일제의 비법적인 우리 나라 군사적강점통치가 남긴 범죄적잔재를 깨끗이 가시는 문제이다. 그런데 일본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저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책모의 일환으로 남도강점으로 틀어박힌 독도와 조선동해의 일본식표기를 계속 고집해나서고있다.

업연한 역사적사실자료들과 명유년 및 바다 이름표기와 관련한 국제관례와 원칙을 무시하고 독도와 우리 나라 동해의 이름을 빼앗기 위해 악을 쓰는 일본의 책모는 지난 세기 전반 일제가 감행하였던 조선침략행위의 복사판이며 그 연장자이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제침, 평도평양야에 사로잡혀 우리 나라의 신성한 평도독도를 강탈하고 조선동해의 이름을 빼앗기 위해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역사자료와 사실들을 강짜로 부인, 왜곡하는 등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책모를 다하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본성과 악습은 역시 갈데 없다. 그러나 일본은 그 어떤 수법으로써도 독도와 조선동해의 명칭을 빼앗지 못할것이다.

일본의 이런 추태는 자기 스스로 제멸굴에 먹칠을 하는 얼빠진것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도 일본은 평도강탈야, 제침을 꿈꾸는 위험한 침략책모로서의 자기의 본색과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일본은 시대의 변천과 세계민심을 똑바로 보고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리 경 수

## 영국정당, 단체들의 연합대문회 진행

대양절에 즈음하여 영국정당, 단체들의 연합대문회가 4월 9일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토론장에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영국인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엔디 브록스, 공산당 (참스-메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엘리 볼 등 여러 주당 대표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머토 하드슨, 조선의 벗들의 조경위원장 최기장 마이클 칸토를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인사들, 중언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영국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떠나 사회주의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제하는 수령님을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의 새시대를 열치신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절세의 위인으로,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다합없는 호모를 받으시는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은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그는 대양절 기념행사가 세계적관대에서의 의의있게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영국인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영국 조선의 벗들의 조경위원장 최기장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말에 조선은 이미 쟁취한 혁명의 열매를 풍요히 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고 하면서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의 강성대국건설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영국공산당 (참스-메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

## 기념블레 진 발행

대양절에 즈음하여 베루단체들이 기념블레를 발행하였다.

베루에 있는 평양문화원에서는 4월 15일 블레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추억》, 《고려민주평화공화국창립반일》 등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블레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99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진하였다.

4월 15일은 역사적의미를 지니는 잊을수 없는 날이다. 예나하루 자신의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이기때문

## 아세안 수뇌자회의 진행

【평양 5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뇌자회의가 7일과 8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아세안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협조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아세안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었다.

회의끝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아세안인원회합장과 인신애매반대투쟁에서의 협조 등에 대한 3건의 공동성명과 의장성명이 채택되었다.

## 로씨야에서 전승절 경축, 열병식 진행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6돐을 경축하였다.

로씨야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프가 8일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성벽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정부수상 올라지미르 푸틴, 연방평의회와 국가회의의 대의원들, 대통령행정부와 정부성원들, 군대지휘성원들, 전쟁로병들, 여러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중 주인들이 화환진정식에 참가하였다.

이날 대통령의 참가에 로씨야연방중앙박물관의 《승리의 기쁨》관 개관식이 진행되었다.

9일 크레믈린에서는 전승절에 즈음한 연회가 있었다.

연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 누구도 로씨야를 건드릴수 없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영웅도시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들에서 전승로병들의 상모모임, 예술공연, 음악회 등 다채로운

## 민족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

만나대통령 레인 세인이 1일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에 즈음하여 발표한 서한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근로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것을 호소하였다.

서한은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줄것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

로동자, 농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평화롭고 현대적인 발전된 나라를 건설하는데 떨쳐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근로자들은 신식민주의자들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나라의 공민화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서한은 강조하였다.

## 미국, 미사일방위체계 전개계획에 우려

나토주제 로씨야인사이드 드미트리 로고진이 5일 유럽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전개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이 로드니야로에도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고있고 그와 관련하여 그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랄지역까지의 로씨야 영토가 미국요격미사일의 사거리안에 들수 있다고 까맣했다.

그는 유럽미사일방위체계의 요격미사일들을 자기 사거리보다 더 가깝게 로씨야국경에 접근시키지 말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 수출성 과

이런에서 지난 5년 동안에 비현유제출수출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올해 상반기동안에 7000의 파이너를 다른 나라들에 수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파이너가공공장이 건설중에 있는데 공장의 하루가 공능력은 40t에 달한다.

본사기자



타이에서 어린이 교육사업

## 불가인상, 예산적자 증대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 주민들이 생활난을 겪고있다. 3월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성원국들에서 올해 3월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7%

##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감염성질환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2008년 사람들의 사망인원을 밝힌 보고서에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3600만 명이 당뇨병과 암, 만성호흡기 질환과 같은 비감염성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 수는 2008년 사망자수의 약 60%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들이 여러 지역과 나라들로 확대됨에 따라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고있는것이다.

2020년까지 비감염성질환에 의한 사망자수는 4400만 명으로 늘어날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저소득나라들에서 급속한 도시화 등에 따라서 사무원의 증가로 비감염성질환환자가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해당 나라의 경제장성을 없애는

## 서리맞은 미군의 이라크장기주둔 계획

얼마전 미합동참모본부의 장 말린은 이라크정부가 가까운 시일안으로 올해 이후의 미군주둔문제를 해결 하우루며 《결정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이라크장기주둔의 일종의 압력이라고 호소하였다.

일례 2008년에 체결된 미국과 이라크사이의 《안보협정》에 따라 미군은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서 완전철수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말린은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머물러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라크정부가 철수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생 격하면 속히 결심하고 미국에 요청해야 해당 대책을 세운다는 식으로 모순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속성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라크의 무장집단 원수자원에 대한 독립적지배를 군사적으로 뒤받침할수 있게 미군이 아니라에 장기주둔이 못박아두자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의 풍부한 원유자원을 노리고 《반대로》를 미명하여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점령을 단행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무력으로 이라크를 강점하고는 이 나라의 원유를 독점하고 마구 빼앗아가고있다.

## 의한 피해

산사태로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살림집들이 파괴되었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 서부자바주에서 7일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17명이 사망하고 2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4명이 부상당하였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죽어나는 미군과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나토군병사 2명이 또 죽사하였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카블에서 4월 27일 미군에 대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카블에 있는 공군지에서 한 아프가니스탄인이 손 총에 맞아 8명의 미군병사가 죽었다고 한다.